

같은 戰爭을 니르켜 사람의 血(血)를 만히 흘릴 뜻을

보임이니라。그런데 大體의 世人들은 戰爭을 한 것

무삼主義、思想、革命、國際等의 問題로만 알지 만은 實

狀은 하나 님 의 서 이 罪惡世上의 人口를 滅하지는 攝

理의 懲罰인 同時에 또한 一方으로는 人들을 노하여 酷

罪를 悔改하고 當身을 向하야 도라오라고 催促하는

攝理의 政策이 옳시다。默示錄六章四節을 보면 人들을

은 다 不戰主義 和平主義를 가지고 和平을 想望하는

中에 있섯지만 하나 님 의 서 彼赤馬를 탄 天使即戰爭을 差

持하 天使의 地上의 和平權을 빼앗서 서로 죽이게 하

심으로 人들을 이 아니 하면서 彼此 善하기를

맞치사 人의 개암이 예(蟻群)들을 板上에 헛쳐 놓코 싸움

을 못칠 때에 蟻群들이 싸호지 안으라고 四方으로 各

各기 여나 가지 만은 사람이 위(筵)로 쓸어 던지 때 甲이

판 개암이 가 乙이 판 개암이 의 腰上에 찌러 버리면 갖다 나

細弱한 허리가 乙이 찌러 버리면 甲이 판 개암이 들 實

之喝之하 때 甲蟻의 答辯은 乙을 압박 프지 아니 하며 또

한 여러 고 심히 서 여러 지는 것이 나 더 사 판이 위(筵)로 쓸

어 던지는 때 문이 다 하고 彼此를 고 션 으며 싸움 하게 됨과

가 치 됨이 옳시다。有史以來로 처음 있섯다 는 最近歐洲

大戰의 顛末을 생 각 하여 볼지 라도 赤是하고 심히 한 戰

이 아 년 것 을 以下에 陳述할 바 一國 婚問題를 보아 서

히 알 것 고 一 過去 數十年 間 進化의 道 即 世界의 和平을 企

待(본인(本人)의 처 작한 事 務 等의) 하여 오 던 餘 에 故 의 고 苦

皇帝 니 물 나 스 第二世가 一 던 날 鐵 寢 床에 누 어 서 戰 苦

를 겁 히 는 기 는 同時에 自 今 以後 로 는 一 지 하 면 萬 國

이 서 로 싸 호 지 아 니 하고 좀 알 아 보 았 스 면 하 는 生 覺이 불 날

듯 하 때 드 내 여 너 러 나 서 萬 國 和平의 問題(뜻 싸움 하

고 심 연 구 苦 心 創 議 하 야 列 強 帝 王의 通 牒 輪 議 하 마 一 唱 百 和

로 數 十 餘 國이 詢 謀 僉 同 한 結果 千 八 百 九 十 九 年 에

國의 鋼 鐵 大 王 가 金 百 七 十 五 萬 弗(十 萬 兩)을 捐

하 야 荷 蘭 京 城 海 牙(海牙)에 나 가 萬 國의 和平 大 殿(은 미

兵 大 殿)을 威 氣 樓 와 갖 치 空 中 에 夫 사 나 기 起 築 하 고

列 強의 公 衆 代 表 者 들이 年 々 合 同 하 야 天下 萬 國의

永 久 平 和의 大 策을 講 究 하 리 千 九 百 七 年 에 는 加 盛

大 會 會 四 十 四 國의 代 表 使 節이 會 議 하 였 고 千 九 百

十三年에는 間一年(가면금년은미국, 해년은이년(殿)) 해서

이 殿에 모히기로 호대 場所亦是間一年하야 各國의

로돌녀가며 모히기로 (來往費用及時日問題)로 決議되었는데

翌年即千九百十四年에는 場所는德國코르스란쓰或으로

日字는八月二日로 決定하고 散會하였다가 翌年七月

에 列強들이 天下의 平和를 想望하고 또 各其 大使를 派

遣할새 或었던 代表는 兩석 二週前出發한

이 도 잇었는데 千萬夢想之外 同年六月廿八日 聖마

아의 맛손會(유리안들의회)員即유리안으로 聖마 아에 入籍

하 카부리로, 뿌린집이라 하는 者가, 자라에 위에서 오

스트리아 皇太子 푸란쓰, 뵈지란트를 向하야 第二指를

한번 誦호였다. 폐인, 일 전銃殺事件으로 因하야 同

七月廿八日에 寒, 澳의 宣戰布告가 잇는 同時에 炎々

하 若火의 그勢가 亞平和를 夢想하던 列強의 椽莖에 延

燒할새 八月一日即一夜만 지어진 萬國平和大會의 날

(又八日)인 데, 平和會의 場所인 獨逸과 露西亞의 宣戰布告

가 또 된다는 號外新聞이 排布되매 各國에서 來會하였던 所

지 그勢力을 堪當하리오 風雲이 漸々急迫하여오는 故로

그만 蒼黃히 行裝을 차려가지고 논를 밟을 할 것 업시 업

드러질년(願)잡바질패(沛)하면서 출행낭을 찻다 하는

데 었던 한 年 老大使는 百方으로 盡力하야 爲先露獨

의 宣戰布告부터 取收케 하려 했스나 崑岡大火에 一蠶의

의 물과 같하야 그 戰力이 竭세 됨으로 畢竟은 賽卅三章

七、八節 막삼과 같치 一場痛哭을 하고 自己의 行李도

못가지고 뒤숨뚫다 가 났다 한다. 이것이 었지 奇巧驚

愕할만한 하나 님의 攝理의 事爲 即地의 小和를 매앗스시

사 戰爭아니 하기로 하던 모든 사찰으로 하여곰서 로 죽이

게 하심이 아니며 또한 再臨前兆의 모든 預言대로 다 成

就됨이 가거리오. 이외에 또 다시 奇巧한 한 가지 일이 잇스

니 即國婚問題을 지다. 國婚이라 함은 即列強이 互相

通婚하야 姻婭 族戚을 일우는 일이니 이는 곧 싸움을

붓치지 못하면 霍亂(腹)을 三個月式이 나얏는 더 惡

魔로 하여곰 하춤하고 痛哭하게 할만한 大妙策이 의 다

불지어가 더 英德二皇은 內外從의 分이 잇고 露、英

獨三帝玉도 무삼(未詳)從兄弟의 分이 잇다 하고 任獨

露^로、班^반、諾^낙의四王后^{왕후}도亦是^{역시}무삼(未詳)從兄弟^{동형제}의分^분이잇
다하니 朝鮮^{조선}法俗^{법속}으로말하면 一七八寸^{일칠팔수}即^즉축^축이면服^복
남어슬만한사이라 그런즉 누가더들사이에戰^{전쟁}乎^乎이잇
스리라高^고뜻하엿스리오。그럼으로 是^은永^영久^구平^평和^화의妙^묘
策^책이라高^고舌^설戰^고를치며 泰^태平^평을노래하더니 千^천萬^만意^의外^외
歐^구洲^주戰^전亂^란即^즉以上^{이상}七、八寸^{칠팔수}服^복內^내之^지親^친의나라 一^일萬^만意^의外^외
토너러나攻^공擊^격할때에 甲^갑王^왕이乙^을王^왕을向^향하야宣^선戰^전할마음
이잇스면 戰^{전쟁}爭^쟁에는秘^비密^밀偵^정探^탐이第一^고故^고로 甲^갑王^왕의 딸
이假^가令^령乙^을王^왕의子^자婦^부가되엿다하면 甲^갑王^왕이乙^을王^왕의子^자婦^부即^즉
自己^{자기}의 딸의게 作^작戰^전計^계劃^획의密^밀探^탐의書^수를修^수하야닐아기를
내가이제너의父^부王^왕과宣^선戰^전코저하는에 密^밀探^탐에는 너에
서더갈해술사람이업슨즉 너는速^속히詳^상細^세한回^회書^서로써보
내기를바란다。그러나네가너의男^남便^편과日^일後^후에너의것
될그國家^{국가}와그民族^{민족}을 너의親^친庭^정의父^부母^모와너의本^본國^국民^민族^족
보다더사랑하거든 그만두어라 萬^만一^일密^밀探^탐의回^회書^서를주
지아니하면 너의父^부母^모同^동生^생과本^본國^국民^민族^족은다亡^망하고말겠
스니 이쯤생각하고 에마음대로하야라하엿스매 그
말이그密^밀書^서를보고答^답하면自己^{자기}總^총便^편이라이亡^망하겠고 아

니하면自己^{자기}의親^친庭^정나라이亡^망할지라 以^이故^고로思^소之^지百^백端^단
하다가畢^필竟^경은 그만詳^상細^세한回^회探^탐書^서를作^작送^송하매 甲^갑王^왕이
그探^탐書^서를받고 直^직時^시陸^육軍^군은아모停^정車^차場^장에서出^출發^발하야아
모곳으로가서如此^{이차} 海^해軍^군은아모港^항口^구에서出^출
發^발하야아모곳으로가서如此^{이차} 航^항空^공隊^대와飛^비行^행隊^대
는東^동經^경線^선度^도에서出^출發^발하야北^북緯^위線^선度^도에너드러爆^폭彈^탄을
던지라고 吩^분附^부已^이畢^비에 水^수、陸^육、空^공三^삼界^계의路^로로 一^일時^시
에出^출發^발식커 爆^폭彈^탄銃^총劍^검으로轟^굉々^々然^然、閃^섬々^々然^然、突^특擊^격破^파壞^壞
하야 乙^을國^국을깨강등부스러트릿듯한結果^{결과} 列^렬強^강中^중 몇나
라이그만現^현狀^상과갓치慘^참敗^패를當^당하엿스니 萬^만一^일이國^국婚^혼의
일만업섯더면 이갓흔慘^참敗^패는當^당치아니하엿슬연하엿다
하니 이로써보건대 人^인爲^위의不^부戰^전平^평和^화의得^득策^책이라하들
것이 凄^차絶^절慘^참絶^절의大^대失^실策^책이되고말았스니 此^차等^등의戰^전爭^쟁
은 果^과然^연하나남쳐서사람으로하야곰 죽이게하시는赤^적
馬^말時^{시대}代^대가되여오는始^정兆^조(四〇八)로보여주셔서 우리一般^{일반}
을 警^경醒^성식하시는일이울시다。 (未完)

(〽)